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의 문제점

다니엘 슈타인가르트

킬메스 국립대학교 교수

원제와 출처: Daniel Schteingart, “El rompecabezas del mercado laboral latinoamericano”,
Nueva Sociedad, No. 275, mayo–junio de 2018, pp. 92–105.

핵심어: 복지, 발전, 노동시장, 빈곤, 라틴아메리카

세계 복지 지도에서의 라틴아메리카

잘 알려져 있듯이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 지역이자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 라틴아메리카는 남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 뒤에 위치하고 있다. 소득과 불평등이라는 양 변수의 조합으로부터 우리는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의 물질적 복지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빈곤율은 소득과 불평등 양 차원의 교차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라틴아메리카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빈곤율이 중간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라면 이는 이 지역의 높은 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1인당 GDP와 소득 불평등간의 어떤 조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우선 선진국들은 높은 1인당 GDP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불평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은 오늘날 소득 불평등 현상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고 소득 불평등 현상은 낮게 나타난다.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1인당 GDP는 매우 높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 역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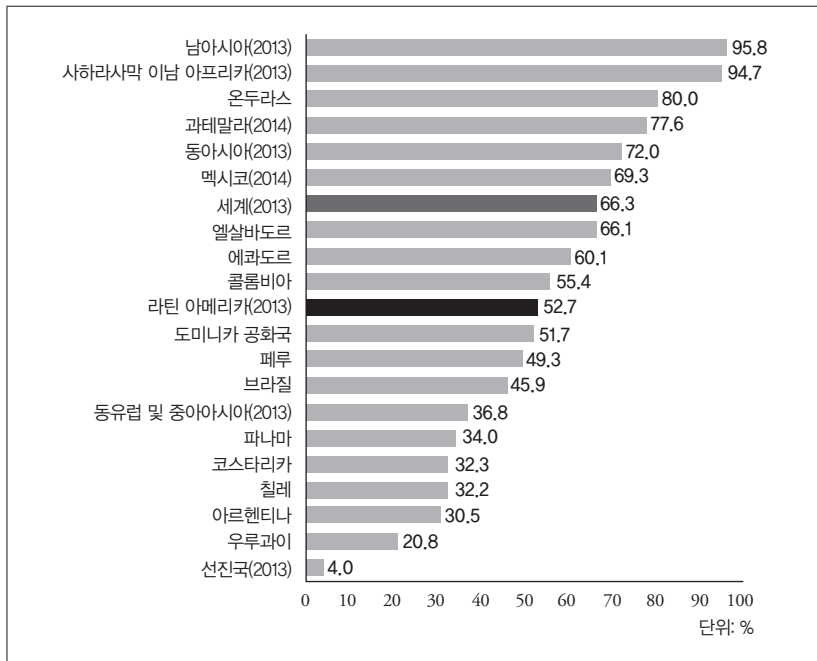
한편 구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은 낮지만 1인당 GDP는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구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보다 1인당 소득은 높지만 매우 높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세르비아의 1인당 소득은 콜롬비아와 유사하다. 그러나 양국의 빈곤율은 현저히 다르다. 구매력 평가 기준 하루당 10달러 선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르비아의 빈곤율이 42%인데 반해 콜롬비아의 빈곤율은 55%에 달한다.¹⁾ 이와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와 칠레는 1인당 소득이 유사하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빈곤율은 23%인 반면 칠레의 빈곤율은 32%이다.²⁾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와 같은 남아프리카

1) 이 선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층으로 간주되며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자국의 빈곤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2) 이 통계 자료는 2014~15년 기준으로 세계 은행에서 운영하는 PovCalNet 사이트에서 인용함.

국가들의 경우 1인당 소득은 중위권이지만 소득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니 계수³⁾가 0.6을 상회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은

〈그림 1〉 2015년 라틴아메리카 지역 및 다른 지역의 빈곤율
(구매력 평가 기준 하루당 10달러 선을 기준)



출처: 세계은행 PovcalNet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http://iresearch.worldbank.org/PovcalNet/povOnDemand.aspx>〉

3) 이탈리아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제시한 경제적 불평등을 계수화 한 것으로 오늘날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인구분포와 소득분포 간의 관계를 수치화 하는데 <0>은 완전평등 상태, <1>은 완전불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1>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 부의 불균형 상태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역주. 보다 자세한 내용은 << https://en.wikipedia.org/wiki/Gini_coefficient >>를 참조하라.

지니 계수는 이들 국가들보다 낮지만 1인당 GDP가 매우 낮다.

〈그림 1〉은 구매력 평가 기준 하루당 10달러 선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빈곤율의 비교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보충 설명해준다.⁴⁾ 이 도표를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율은 50%를 상회하는 반면 선진국의 평균 빈곤율은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빈곤율은 65%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상황에 기인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의 빈곤율은 35% 이하로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때문이다. 우선 이들 국가들의 1인당 GDP가 지역 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역내 국가들 중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페루,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의 빈곤율은 45-50% 사이로써 이 지역 평균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빈곤율은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빈곤율에 있어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불균형 현상 뒤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노동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구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노동 시장의 근본적 양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율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를 알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역내에서도 왜 이질적인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구매력 평가 기준은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미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 분석

취업률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에 서는 취업률(100명당 취업자 수)이 높은가라는 것이다. 이 가설이 옳다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같은 국가에서의 취업률은 높아야만 하고 반대로 이들 국가를 제외한 중미 국가들 및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서의 취업률을 낮아야만 한다. 하지만 1인당 소득 수준과 취업률과의 관계는 전혀 비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관계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 상대적인 경제 발전과 25세에서 64세 사이 성인 취업률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하다.⁵⁾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안데스 산맥 인근 국가들 및 우루과이와 파나마의 취업률은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2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취업률은 중간 정도 수준으로 70%를 약간 상회한다. 반면 취업률이 70%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국가들 중에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과 같이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도 있는 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코스타리카도 있다.

만일 우리가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년 인구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상대적인 경제 발전과 취업률간의 관계가 상당히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5) 1인당 GDP와 25세에서 64세 사이 성인 취업률 간 상관관계 지수는 2015년 기준 0.06이다. 이 상관관계가 완전 비례할 경우 지수는 1이며 완전 반비례할 경우 지수는 -1이다. 또한 상관관계가 없다면 지수는 0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코스타리카, 브라질에서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령 인구 비율은 20% 미만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노령 인구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 연령대의 상당수가 연금을 수령해 생활을 하고 있기에 노동 시장에 참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의 노령 인구의 취업률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노령 인구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15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 인구층에서도 나타난다. 즉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칠레에서는 이 연령층의 취업률이 35% 이하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현상의 배경에 존재하는 구조적 원인은 이들 국가에서 15세 이상 24세 미만 연령층들의 중등 교육 및 대학 교육으로의 접근 가능성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⁶⁾ UN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 사이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15세 이상 24세 미만 인구 및 64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무상 교육 및 연금 제도의 확대에 의해 낮아졌다.⁷⁾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 내용을 “청년 취업률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식으로 선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환경 속에서는 청년 취업률이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같은 긍정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실업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브라질에서는 2013년 초부터 2017년 초 사이 청년 취업률이 46%에서 38%로 하락하였는데 이 시기에 청년 실업률은 18%에서 31%로 증가하였다.⁸⁾ 브라질의 이와 같은 드라마틱

6) 실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1인당 GDP와 15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률 간 상관관계 지수는 -0.63 이다. 한편 1인당 GDP와 64세 이상 노령층의 취업률 간 상관관계 지수는 -0.72 에 달했다.

7)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17*, Naciones Unidas, Santiago de Chile, 2018.

8) LABLAC 데이터베이스 참조.

한 상황은 비슷한 연령집단에 따른 장기적 차원의 취업률과 같은 구조적 경향성이 2014년부터 지속되어 온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경제 사이클과 결부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경제 지표들을 단순히 선형적으로 읽지 말아야 할 중요성 역시 부각하고 있다.

고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들의 고용의 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2>에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2015년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하고 있다. 노동 시장의 공식적인 핵심으로 정의될 수 있는 영역 속에는 고용주,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임금 근로자, 공공 부문 근무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노동 시장의 비공식 부분에는 가사 서비스를 포함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임금 근로자, 비숙련 자영업자, 그리고 무임금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⁹⁾ <그림 2>에서는 노동 시장의 비공식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부터 공식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대적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의 존재가 명백하게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칠레, 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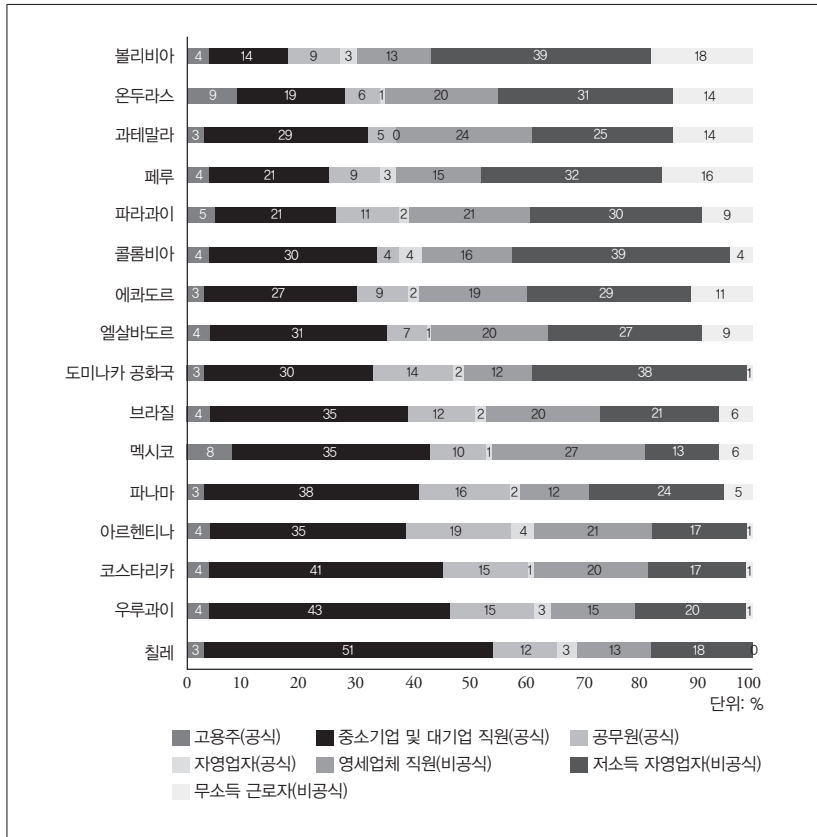
9)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의 공식성/비공식성의 구분을 위해 라플라타 대학교의 분배 노동 사회 연구소(Centro de Estudios Distributivos, Laborales y Sociales de la Universidad de La Plata, CEDLAS)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 역시 유사한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소기업 및 대기업 고용주, 공무원, 초소형기업의 숙련 근로자, 소기업 및 대기업의 숙련 비숙련 근로자, 중소득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중생산성 및 고생산성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저소득 자영업자, 가사 서비스 종사자, 영세 기업의 저임금 근로자 등을 저생산성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Cepal, op. cit.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와 라플라타 대학교 분배 노동 사회 연구소의 기준 설립에 있어서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영세 사업자와 소기업 및 대기업 고용주를 구분하였고, 초소형기업의 숙련 근로자를 중생산성 및 고생산성 근로자로 정의한데 비해 후자는 이들을 노동 시장의 비공식적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과이,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 5개 국가는 동시에 가장 공식적인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노동 시장은 바람직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보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과 가장 공식적인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는 칠레에서는 비공식 노동 시장 중 사자들이 경제활동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 2>는 우리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보여준다. 첫째,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경제활동인구의 4% 남짓한 콜롬비아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19%에 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21%보다는 낮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사업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30%를 상회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도 한참 낮은 수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¹⁰⁾ 칠레는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눈에 띈다. 그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의 51%로 14%에 불과한 볼리비아나 19% 남짓한 온두라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동시에, 경제발전 정도와 임금 근로자 비율의 비례관계가 또한 현저하게 드러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를 상회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볼리비아, 온두라스,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 이 비율은 50%를 밑돈다. 이 지역적 패턴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입증된다. OECD 회원국들의 임금 근로자 비율은 평균 87%이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95%를 상회한다.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 도상국가들에

10) 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 참조. <<https://stats.oecd.org/>>

서 임금 노동자 비율은 28% 정도다.¹¹⁾

〈그림 2〉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직종 구성



출처: 라플라타 대학교의 분배 노동 사회 연구소 (CEDLAS)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11) Ilostat 자료 인용. <www.ilo.org/ilostat/>

〈그림 2〉가 보여주는 라틴아메리카 노동 시장의 또 다른 두드러진 측면은 자영업이 기업이 정신이나 ‘내 회사의 사장’과 같은 개념과 결부된 긍정적 고용의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생계활동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비록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 지역 전체에서 자영업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에서 전문 자영업 비율은(아르헨티나는 18%, 칠레는 15%, 우루과이는 11%) 과테말라(1%)와 멕시코(7%)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저개발과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에서의 가족 노동과 결부된 무임금 노동 간의 관계 역시 우리의 주목을 끈다. 볼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 무임금 근로자는 10%를 상회한다. 이 사실은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등 무임금 노동자 비율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국가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앞에서 우리가 임금 노동자 비율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의 경향은 전 세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들에서 무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9%에 달한다. 반면 OECD 회원국에서 무임금 근로자 비율은 평균 1% 남짓이다.¹²⁾

그런데 우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다른 지역 국가들을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를 고려할 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노동 시장에서의 전문직이나 기술직과 같은 고급 노동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¹³⁾ 상술했다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고급 노동 비율이 높아지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라

12) 노동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무임금 가사노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 통계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활동을 또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3) 직업 분류 데이터는 OTT (ILOSTAT) 데이터 베이스를 인용함.

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고급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례관계의 일반적 양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우리는 중동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1인당 GDP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급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은 공통적으로 지식 집약적 노동보다는 천연자연 집약적 노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라틴아메리카보다 평등 지수가 훨씬 높은 동유럽 및 구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은 1인당 GDP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아마 사회주의 시절 이들 국가 노동자들이 획득한 높은 교육 수준의 유산일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과 노동 시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근로 소득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국가 간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 간에는 어떠한 불일치와 부조화가 존재할까? 라플라타 대학교의 분배 노동 사회 연구소(CEDLAS)가 제공한 정보는 앞에서 살펴 본 빈곤율에 대한 데이터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달러화 환산 1인당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순서대로 높은 근로 소득 국가이며 동시에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는 가장 낮은 근로 소득 국가이자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여준다.¹⁴⁾ 소득수준과 빈곤율 간의 깊은 상관관계는 비록 완벽한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그러나

14) 2015년 자료임. 2015년 코스타리카의 월 평균 수입은 달러화 환산 1인당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1,175달러였다. 코스타리카의 뒤를 이어 파나마는 1,154달러, 칠레는 1,146달러, 아르헨티나는 1,142달러, 우루과이는 1,034달러였다. 반면 온두라스는 458달러였다. 전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월 평균 수입은 837달러였다.

비록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들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가장 높은 근로소득국가로 특징 지워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루과이의 가장 낮은 빈곤율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근로 소득과 함께 기본적으로 빈곤을 정의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다음 세 가지 요인들 때문이다. 첫째, 비근로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근로 소득 및 비근로 소득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셋째, 가구 구성원 중 몇 퍼센트가 소득이 있는가? 이 마지막 요인은 가구의 평균 규모 같은 질문과 결부된다. 즉, 3인 구성 가구에서 단일 소득자가 있는 것과 5인 구성 가구에서 단일 소득자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우루과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우루과이의 경우, 가구의 평균 규모는 2.8명이다. 반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평균 가구 규모는 3.2명이다. 평균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멕시코는 3.8명이다. 평균 가구 규모가 가장 낮은 것에 비해, 우루과이 인구의 64%는 근로 소득 혹은 비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반면 칠레의 경우에는 인구의 58%,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54%, 멕시코의 경우에는 48%가 소득을 얻고 있다.¹⁵⁾

한편,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에서 어떤 직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존재한다. 첫째, 고용주들은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2.2배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둘째, 라틴아메

15) 여기에 대해 니콜라스 바다락코(Nicolás Badaracco), 레오나르도 카스파리니(Leonardo Gasparini), 마리아나 마르치오니(Mariana Marchionni)는 라틴아메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을 설명할 때 출산율이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N. Badaracco, L. Gasparini y M. Marchionni: "Distributive Implications of Fertility Changes in Latin America", Documento de Trabajo del CEDLAS No 206, 2017). 저출산율은 곧 가구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구 구성원 1인당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빈곤 상태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저출산율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수반하여 이는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우루과이의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인구의 취업률은 70%였는데 이는 파나마의 62%, 아르헨티나의 59%, 칠레의 58%, 코스타리카의 53%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본 자료는 CEDLAS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통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리카의 모든 국가에서 공공 부문 임금 근로자들은 각 국가들의 평균 임금을 상회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들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와 유사하게 전문직 자영업자들 역시 국가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소형 기업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과 비숙련 자영업자들의 임금 소득은 평균 임금보다 아래였다. 반면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및 대기업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¹⁶⁾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경향 속에서 각 국가의 특수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특수성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직군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술했다면, 아르헨티나에서 고용주들의 소득¹⁷⁾과 비공식 임금 근로자의 소득 간의 차이는 2.2배인 반면 칠레의 경우에는 3.4배, 파나마의 경우에는 5.4배에 달한다. 예상할 수 있듯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소득 격차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소득 격차는 1.9배인 반면,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3.6배, 칠레의 경우에는 3.1배이다.¹⁸⁾ 더군다나 아르헨티나의 비공식적 핵심 구매력은 달러화 환산 구매력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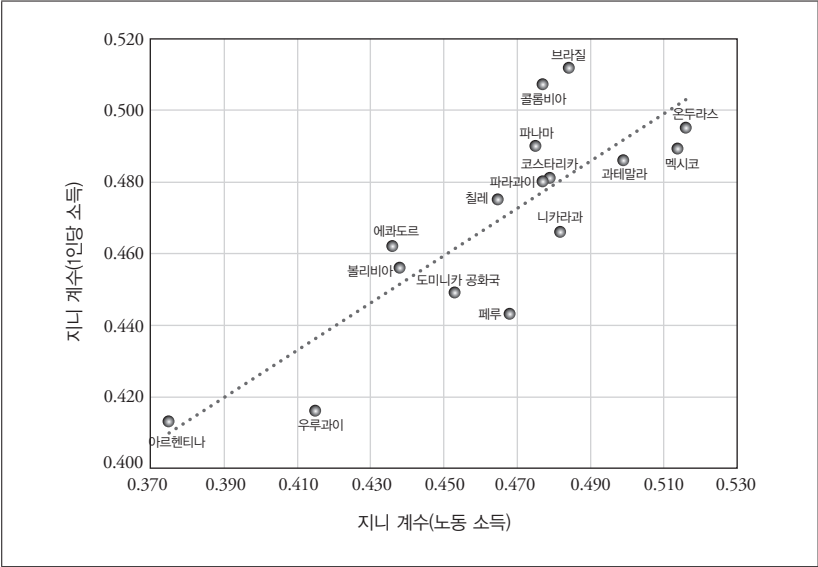
16)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단순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015년 공공 부문 임금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국가 평균 임금보다 65% 많다.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58%, 5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 소득자들의 경우에는 15% 각각 국가 평균 임금보다 높다. 반면 초소형 기업 임금 근로자와 비숙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국가 평균 임금보다 각각 39%, 37% 낮았다.

17) 본 글에서 이용한 자료는 가구통계조사에 기반 한 CEDLAS의 데이터 베이스이다. 이 기관의 가구통계조사에는 자진소득신고를 바탕으로 한 임금 소득에 대한 통계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즉 첫째, 슈퍼 리치들은 무작위 표본추출조사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둘째,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이다. 국가 간 비교에서 왜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가 소득 축소 신고 비율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구 조사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이 문제를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18) 모든 자료는 가구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CEDLAS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인용.

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다.¹⁹⁾ 따라서 근로소득 지니계수가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아르헨티나라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소득 측면에 있어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비록 완벽한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가구당 소득 분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실제로 <그림 3>에서 우리는 노동시장 지니계수와 가구 총소득(국가 간 소득분배 불평등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가구당 소득) 지니계수 간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특수성 뒤에는 국가의 생산구조가 요구하는

〈그림 3〉 2015년 임금소득 지니계수와 가구당 소득 지니계수 간 상관관계



출처: CEDLAS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필자가 구성

19) 예를 들어 2015년 아르헨티나의 비숙련 자영업자들의 구매력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평균보다 36% 높았고 칠레가 뒤를 이어 21% 이상 높았다.

자격과 자질에 대한 대학 졸업자의 과잉 공급, 그리고 노동 시장의 제도적 특징들(예를 들어, 비숙련 부문에서의 높은 노동조합 비중, 단체 협상, 2002년 이후 최저 임금의 높은 인상을 통한 임금 균등화 정책 등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의 제시는 노동 시장의 성격을 연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앞에서 분석한 사항들은 월 근로 소득을 다루고 있기에 국가 간 그리고 다양한 직군 간 근로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근로시간과 경제발전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일수록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근로시간과 경제발전 간에 반비례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나마는 브라질, 에콰도르와 함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²⁰⁾로 가장 짧은 국가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멕시코는 주당 근로시간이 45시간 이상으로 가장 긴 국가들이다.²¹⁾ 만일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를 근로시간

20) 가구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CEDLAS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인용.

21) 실제 1인당 GDP와 근로시간 간의 피어슨 계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0.402 이며 세계 전체로는 -0.463 이다. 피어슨 적률상관계수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PPMCC)란 영국의 통계학자 칼 피어슨 (Karl Pearson)이 개발한 것으로 표준화된 두 변수 X, Y간의 공변 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이 변수들은 선형적 관계를 보여주며 관계성의 정도는 -1 에서 $+1$ 척도상에 위치한다. 변수 X와 변수 Y의 상관관계가 $+1$ 이면 두 변수가 완벽한 비례관계를 형성하면서 일대일로 대응,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상관관계가 0 이면 두 변수가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상호 관련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상관관계가 -1 이면 두 변수가 완벽한 반비례관계를 형성하면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상관관계가 양수일 경우 두 변수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며 상관관계가 음수이면 두 변수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한다. 정적 상관일 경우 변수 X가 증가(감소)할 때 변수 Y 역시 증가(감소)하며 부적 상관일 경우 변수 X가 증가(감소)할 때 변수 Y는 감소(증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Pearson_correlation_coefficient)를 참조하라. (역자 주)

비교 리스트에 추가한다면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상당히 아래에 위치할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 미만이다.²²⁾ 우리가 청년 취업률에 대해 분석할 때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 측에서 업무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여가를 선호하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극심한 경기 침체가 동안 아르헨티나는 주당 44시간 근로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다. 이 기간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경기쇠퇴를 경험했던 우루과이 역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외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또 다른 규칙들이 존재한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용주의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콜롬비아의 경우 54시간에 이른다.²³⁾ 라틴아메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고용주들은 다른 직군 근로자들이 주당 42시간을 근무하는데 비해 49시간을 근무한다. 둘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직군은 무임금 근로자로서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29시간이다.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근로시간보다 5시간 이상 더 근무한다.

22)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 (OECDSTAT) 인용.

23) 라틴아메리카에서 고용주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직종이라는 사실 이외에 또 다른 특성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용주들을 성별 구조로 관찰했을 때 75%가 남성일 정도로 매우 남성 편향적이다. 둘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38세인데 비해 고용주들의 평균 연령은 46세이다. 셋째, 고용인들의 대부분은 가장이다. 넷째, 고용인들은 비숙련 자영업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전문직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낮고 임금 근로자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 다섯째, 고용주들 간 소득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다. 여섯째, 초소형기업인은 자영업자로, 자영업자는 초소형기업인으로의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곱째, 고용주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초과 소득을 더 많이 얻는다. Pablo Gluzmann, David Jaume y Leonardo Gasparini, "Decisiones laborales en América Latina: el caso de los emprendedores. Un estudio sobre la base de encuestas de hogares", *Documento de Trabajo del CEDLAS*, No 137, 20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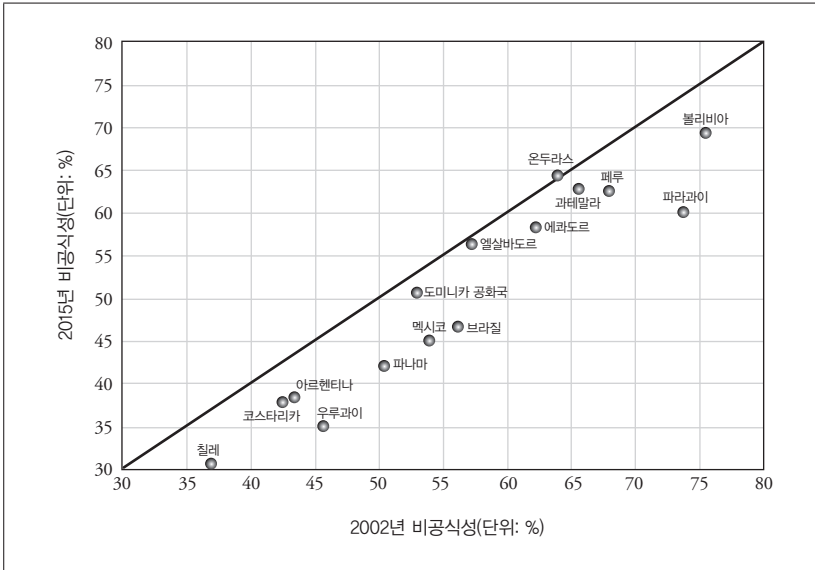
반면, 비숙련 자영업자들은 평균 근로시간 이하로 근무하는데 이는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이 직군이 지닌 특징인 업무 및 작업의 비지속성에 기인한다.²⁴⁾ 공공 부문 임금 근로자들과 초소형 기업 임금 근로자들은 경우에 따라 평균 이상 혹은 평균 이하 근무를 하는데 라틴아메리카 이외 지역에서 공공 부문 임금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평균치에 가깝다.

결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라틴아메리카는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경험하였다. 이 덕분에 코스타리카부터 남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까지 빈곤 현상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호의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의 실질 소득의 향상 및 어느 정도의 비공식성의 감소와 같은 노동 시장에서의 긍정적 변화로 인해 생활 조건이 향상되었다(그림 4) 참조). 근로소득의 불균형 현상 역시 이 시기에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상호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990년대와는 대조적으로 2002년부터 2014년 사이 경제 호황기에는 비숙련 근로자 직군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경제 자유화는 전문직 근로자보다는 비숙련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경제 발전은 실업률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불평등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반면 2000년대의 경제 성장은 1990년대의 경제 성장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일반화 되었는데, 특히 많은 부분이 건설업이나 1차 산업과 같은

24) 예를 들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아르헨티나의 비숙련 자영업자들의 30%가 보다 많은 시간 일을 하고자 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16%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길 원하는 것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Encuesta Permanente de Hogares de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 (eph-Indec)의 자료를 취합하여 계산함.

〈그림 4〉 2002~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의 비공식성 변화 양상



출처: CEDLAS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노동의 비공식성의 범주에는 5인 이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 노동자, 학사 학위 없는 자영업자, 무임금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닌 부분이었다.²⁵⁾ 둘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승률은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았다.²⁶⁾

25) L. Gasparini, Guillermo Cruces and Leopoldo Tornarolli, "Chronicle of a Deceleration Foretold: Income Inequality in Latin America in the 2010s", *Documento de Trabajo del CEDLAS*, No. 198, May 2016.

26) 예를 들어 말레나 아르시아코노 (Malena Arcidiacono)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아르헨티나에 있어 최저 임금의 분배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은 평균임금 격차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년 0.5% 포인트, 전체 임금 근로자의 경우 년 0.3% 포인트의 감소를 설명해 주고 있다." Malena Arcidiacono, "Salario mínimo y distribución salarial: evidencia para Argentina 2003-2013", *Documento de Trabajo del CEDLAS*, No 192, Diciembre de 2015, p. 2.

노동 시장의 역동성이 비록 가구 간 소득격차 축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취약 계층으로의 현금 이전의 확대와 같은 다른 변수들도 소득격차 축소에 기여하였다. 현금 이전은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노령 연금의 준보편화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보편 아동수당(Asignación Universal por Hijo)²⁷⁾이나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²⁸⁾와 같은 조건부 현금 지급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출산을 저하 역시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출산을 저하는 빈곤층 가정의 자녀수의 감소 및 가구 규모의

27) 실업 상태에 있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명의 자녀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9년 10부터 시행되었다.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5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재학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 주무기관인 복지청(Administración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은 지원금 대상인 각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발급하여 관리 및 통제를 한다. (역자 주)

28) 2003년 룰라 행정부의 출범 이후 시작된 빈곤과 가아 퇴치를 위한 브라질 연방정부의 복지정책이었던 포미 지루(Fome Zero) 프로그램의 일환.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지원금 정책으로 빈민층의 음식 및 에너지 구입, 자녀의 취학 지원을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대상 가구에게 지급하였다. 2003년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정한 빈곤선인 가구 구성원 1인당 소득이 50헤알 이하인 가구에는 50헤알을 지급하였고 50헤알 이상 100헤알 이하인 가구에는 미취학 아동 1인당 15헤알씩 최대 45헤알까지 지급하였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시민카드”라고 불리는 체크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카드를 가정에 지급한다. 이 카드를 지급받은 가정은 국영은행인 연방 경제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의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발견된 약점들 중 하나인 남성 가장들의 경우 지급된 현금을 정부가 의도한 최저 생계유지에 쓰기 보다는 술과 마약 구입에 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 남성 가장보다는 여성 가장에게 “시민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2006년부터 보우사 파밀리아 수혜 가정이 적절하게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하는 지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는 기초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Básico), 변동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Variável), 청소년 변동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Variável para Jovem), 최빈곤 극복을 위한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para Superação da Extrema Pobreza) 등의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우사 파밀리아 제도는 브라질의 빈곤 타파에 큰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부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켜 경제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역자 주)

축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가구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다.²⁹⁾

2000년대 이론 이와 같은 노동 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추세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과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심지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 중 두드러진 것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둔화, 2000년대와 비교했을 때 역동적이지 못한 세계경제의 결과, 세계 무역의 감소, 특히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무역량 감소 등이다. 여기에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의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심각한 실책을 덧붙일 수 있다. 특히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거시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브라질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고, 베네수엘라는 2013년부터 거시경제 지표 및 사회 지표의 모든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2011년부터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2017년 1인당 GDP가 2011년 보다 3% 하락하였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각 국가의 특수성은 차치하고, 확실한 것은 그 어떤 라틴아메리카 국가도 2000년대 경제 호황 속에서 생산성 측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노동 시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를 일궈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남미의 원자재, 중미와 멕시코에서의 제품 조립과 같은 지역별 특화 양상은 15년 전과 매우 유사하다. 반면 1인당 GDP 대비 R&D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이러한 행적은 같은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 준 행적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중대한 생산 구조의 변화를 일궈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위소득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

29) Badaracco, Gasparini y Marchionni는 브라질에서 1990년부터 2012년 사이 출산률 감소가 지니계수를 18% 떨어뜨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N. Badaracco, L. Gasparini y M. Marchionni, *ob. cit.*

켰다. 중위소득의 함정이란 1인당 GDP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중위권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통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위소득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하면서 임금수준도 낮은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라는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함정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생산성과 혁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혁신을 일궈낸다는 것은 훌륭한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과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생산적 연계와 기술적 역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생산, 과학, 기술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행동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공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요구한다.

정동희 옮김